

호랑이 야성 깨워줄 감독 찾아라

KIA 감독, 팀 리빌딩 적임자 선임 급선무

로이스터·김기태·이건열 등 물망에 올라

KIA의 '왕조부활' 프로젝트가 원점에서 다시 시작된다. 인사(人事)가 만사(萬事)다. 가장 먼저 내년 시즌을 언급한 팀은 KIA였다. 시즌 종료 이틀 만에 선동열 감독의 재계약을 발표하면서 '리빌딩'을 언급했다. 하지만 팬심에 역풍을 맞으며 KIA의 구상의 핵심인 사령탑이 빠졌다. '왕조부활'의 기틀을 다지기 위한 초석, 감독 선임이 KIA의 발등의 불이자 최우선 과제가 됐다.

◇아는 것이 힘이다. 갑작스런 사퇴이기는 하지만 차기 후보군에 대한 얘기가 없었던 것은 아니다. 아시안게임으로 뒤늦게 끝난 시즌, 시즌 막바지 KIA는 여러 안을 놓고 고민을 했다. 2년 연속 8위라는 성적 탓에 자연히 차기 감독 후보에 대한 고민도 이뤄졌다. 그

러나 생각보다 빨리 재계약이 결정되면서 이강철 넥센 수석코치와 이진열 동국대 감독 등 후보들의 이름은 수면 아래로 가라앉았다. KIA는 2~3년을 어쩔 수 없는 리빌딩 시대로 보고 있다. 김선빈, 안치홍 주전 선수들의 공백이 있고 앞서 체계적인 유망주 육성과 선택에 실패한 만큼 전력 약화는 피할 수 없다는 분석이다. 그래서 KIA는 시행착오의 시간을 줄인 리빌딩을 위해 '팀을 잘 아는 이'를 우선 대상으로 삼았다. 성적 실패에도 선 감독을 선택한 뒤에도 이런 부분을 얘기했다. 이강철 수석코치, 이진열 감독과 함께 한대화 수석코치, 이순철 전 수석코치, 김성한 전 감독 등 팀을 거쳐간 지도자들의 이름이 언급되는 이유이기도 하다.

◇새 술은 새 부대에. 후퇴한 지난 3년과 겪어야 하는 암흑기를 앞두고 KIA는 '팀컬러' 정립을 주요 과제이자 목표로 하고 있다. 타이거즈 만의 큰 틀을 세우고 그 틀에 맞는 인사를 영입하고, 꾸준한 색을 만들겠다는 구상이다. '재장단'에 가까운 변화가 필요한 만큼 외부 인사를 통해 새판을 짜야 한다는 의견도 있다. 지난 3년 감독의 실패가 두드러지기는 했지만 선수들도 이 책임에서는 자유로울 수 없다. 부상 관리에 실패했고, 고참들은 선수들을 묶지 못했다. 후배들도 옛 선배들의 열정과 투지를 잊지 못하는 등 제 역할을 하지 못하면서 '8위팀' 선수가 됐다. 이름값을 뺀 치열한 경쟁과 발전을 위해서는 선수단을 새로 보고 재편할 눈이 필요하다. 그런 측면에서 외부인사도 강력한 후보군이다. '노 피어(No fear)' 정신으로 신바람 야구를 만들어냈던 로이스터 전 롯데 감독도 타이거즈 색에 맞는 새판을 짤 수 있는 후보로 꼽힌다. 사퇴 과정이 흡으로 꼽히기는 하지만 베테랑을 중심으로 '형님 야구'를 만들었던 김기태 전 LG 감독도 고



로이스터



김기태



이건열

려대상이다. 29일 KIA 선수단은 일본 미야자키로 마무리 캠프를 떠난다. 새 사령탑과 함께 새 시즌 준비를 시작하는 게 KIA가 생각하는 가장 이상적인 모

습이다. 그러나 절대 소홀히 할 수 없는 문제인 만큼 신중을 기해 차기 감독을 선임하겠다는 게 KIA의 입장이다. /김여울기자 wool@kwangju.co.kr



'야신' 한화감독에

김성근 감독, 3년간 총액 20억원에 계약

'야신' 김성근(72) 감독이 한화 이글스의 사령탑으로 프로야구 그라운드에 복귀한다. 한화는 25일 김성근 감독을 계약금 5억원과 연봉 5억원 등 3년간 총액 20억원에 제10대 사령탑으로 선임했다고 발표했다. 김 감독은 SK 사령탑에서 물러난 2011년 8월 이후 3년 2개월 만에 프로야구 사령탑으로 복귀했다.

김 감독은 통산 2327경기에서 1234승과 1036패, 57무승부를 기록해 김응용 전 한화 감독(통산 1567승)에 이어 역대 한국 프로야구 감독 가운데 두 번째로 많은 승리를 기록한 명장이다. 1984년 두산 베어스 감독을 시작으로 1989~1990년 태평양 돌핀스, 1991~1992년 삼성 라이온즈, 1996~1999년 쌍방울 레이더스, 2002년 LG트윈스, 2007~2011년 SK 와이번스 등에서

감독을 역임했다. 그는 특히 LG 트윈스의 정식 사령탑이던 2002년 팀을 한국시리즈로 이끌며 '야구의 신'이라는 별명을 얻었고, SK 재임 시절 네 차례 한국시리즈 진출과 세 차례 우승을 거머쥐어 한국 프로야구 최고의 명장 반열에 올랐다. 그러나 타협 없는 지도 스타일은 자주 구단과 마찰을 빚었다. SK에서도 구단 고위층과 심각한 갈등을 겪다

2011년 경질됐다. 지휘봉을 내려놓은 이후 한국 최초의 독립구단인 고양 원더스에서 재기의 꿈을 가진 선수들을 지도한 김 감독은 올해 9월 원더스가 해체하면서 '야인'으로 돌아왔다. 그리고 리빌딩과 성적 향상이 동시에 가능한 사령탑을 찾던 한화에서 김 감독에게 손을 내밀면서 3년 2개월 만에 프로야구 그라운드에 복귀하게 됐다. /연합뉴스

무등산생태요양병원-오렌지클래쉬, 외나무 다리서 만났다



광주일보 무등기 사회인 야구 다음달 2일 우승컵 두고 격돌

막강 화력의 무등산생태요양병원과 철벽 수비의 오렌지클래쉬가 무등기 광원리구 우승컵을 다툰다. 광주일보사가 주최하는 제4회 무등기 광주·전남사회인야구대회 7주차 경기가 지난 25일 무등중학교 야구장에서 열렸다. 광원리구 준결승전으로 진행된 이날 경기에서 무등산생태요양병원과 오렌지클래쉬가 승리를 거뒀다. 결승행을 확정지은 두 팀은 다음달 2일 무등기 우승을 놓고 마지막 한판 대결을 벌인다. 무등산생태요양병원은 공수에서 레드위너스를 압도했다. 무등산생태요양병원은 김건국의 스리런과 이대수의 솔로 홈런 등 15점을 뽑아낸 화려한 불방망이를 선보이며 결승행 티켓을 거머쥐었다. 특히, 솔로홈런을 날린 이대수는 투수로도 나서 1점만을 내주는 등 두타 모두에서 신바람을 냈다. 무등기에 첫 출전한 오렌지클래쉬는 백구클럽을 완봉으로 제압했다. 1회 3점을 뽑은 오렌지클래쉬는 3회 4점, 6회 1점을 더하는 등 일방적인 경기를 펼쳤다. 투수 박동원은 백구클럽의 방망이를 완벽하게 묶었다. 한편, 무등기 결승전은 오는 11월2일 무등경기장 야구장에서 펼쳐진다. 광원리구는 오전 10시 무등산생태요양병원과 오렌지클래쉬가, 무등리구는 오후 1시 허버베이스볼과 세한기업재규어가 격돌한다. /박정욱기자 jwpark@kwangju.co.kr

◇1경기	
무등산생태요양병원	3701013-15
레드위너스	0100000-1
▲승리투수 : 이대수	
▲홈런 : 김건국(1회 3점), 이대수(6회 1점·이상 무등산생태요양병원)	
◇2경기	
백구클럽	0000000-0
오렌지클래쉬	304001-8
▲승리투수 : 박동원	

“당신은 포위됐다” 25일 광주시 동구 무등중학교 야구장에서 열린 제4회 무등기 광주·전남사회인야구대회 준결승전 백구클럽과 오렌지클래쉬의 경기에서 오렌지클래쉬 1회말 공격에서 2루 주자 민상철이 런다운에 걸려 태그아웃 당하고 있다. /김진수기자 jeans@kwangju.co.kr